미국 석회시장 공급과잉 “위기”

철강산업 약세 따라 ... 2001년 생산 1890만톤으로 10% 감소

미국의 석회(Lime) 시장이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산업의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혼합의 다양화와 환경보호 압력에 따른 신규투자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석회의 주요 소비분야는 철강, 펄프·제지, 구리 등으로 최근 들어 수요시장이 약세를 보임으로써 석회 시장이 과잉생산으로 전환됐다.

USGS에 따르면, 2001년 미국의 생석회 및 Hydrate 총 생산량은 1890만톤으로 2000년에 비해 70만톤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철강용 석회 판매는 낮은 수입가격과 부진한 수요의 영향을 받았으며 2001년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의 석회 생산량도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다.

미국 석회시장은 가격이 정체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높은 에너지 비용과 소비자 요구 변화에 힘입어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석회 생산기업들은 천연가스 및 전력 코스트 상승으로 2001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Spot 거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2번 인상했다.

Mississippi Lime은 2002년 5월1일 장기계약을 하지 않고 거래하고 있는 일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로터리석회(Rotary Lime)제품 가격을 4.5% 인상했다. 2001년 9월에는 Carneuse North America Group이 장기공급계약이 아닌 일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석회제품 가격을 5.5% 인상한 바 있다.

Mississippi Lime은 석회 가격인상이 급변하는 수요자의 요구와 요건들에 부합하는 고품질 석회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공정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Graymont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석탄, 전기, 인건비의 상승에 맞춰 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천연가스 가격급등은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플랜트의 가동정지를 초래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석회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은 1998년과 1999년의 평균가격에 비해 40-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회산업은 대부분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수직 노를 가동하기 때문에 연료가격 상승이 수직 노 가동에 영향을 미쳤고 일부 수직 노의 가동중단 뿐만 아니라 석회 플랜트 전체의 가동중단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반면, USGS(US Geological Survey)는 경쟁요인 및 장기계약에 따라 석회가격 인상횟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석회 생산기업들은 철강, 제지, PPC, 전기 유틸리티 등 거의 대부분의 수요자들과 다년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가격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격조정은 계약연장 시점에서 가능한 상태이다.

한편, 미국의 석회산업은 앞으로 FGD(Fuel Gas Desulfurization), 폐기물 처리 등과 같은 잠재성장 시장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시장에서 FGD의 성장정도는 앞으로의 규제수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Chemical Journal 2003/05/29>